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4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음식들



행복을 발효한다, 인천 소성주



IDI 소식



인천대도시권 활성화 방
안 정책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은 대통령직속 지역
발전위원회(위원장 홍
철)와 ...

Zoom 人



“반가운 인사 한마디에
도 정(情)을 느껴요”_청
결지킴이
우리 연구원의 고마운 청
결 지킴이이자 배드민턴
과 탁구 상비군(?)으
로 ...

- Zoom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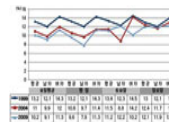
제물량로 2 : 만국공원
와 일본공원
제물량로는 인천역을
거쳐 차이나타운과 파
라다이스 호텔 사이의
언덕길을 ...

● 도시동향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
사·문화유적, 열정적
인 파티 문화가 공존
하는 신비의 섬, 이비
사
지중해 서부, 스페인
의 발레아레스 제도
서남부에 있는 이비사
(Ibiza...)

- IDI 연구



스포츠, 레저, 독서 활동 시간 사용 변화
지난 십년 동안
(1999~2009) 인천시
민들이 교제 및 여가
활동에 ...

● 인천지표

구분	2019년 10월말 기준 사업비(단위: 백만원)	
	계획	실적
기초사업비	27,000	1,710
	(66,960)	(54,200)
일반사업비	7,000	407
	(106,020)	(128,270)
도로개선사업 등유지	3,707	126
	(55,870)	(55,870)
공유지	6,007	300
	(106,020)	(106,600)
기타	0	1
	(10,000)	(10,000)
합계	(86,073)	(2,603)

인천시민들의 여가 통계

■ 분석 자료 개요▶
자료명: 통계청(2012),
2011년 사회조사 ...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4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음식들



인천 음식들

김 윤 식 · 시인

해장국과 추탕, 그리고 냉면이 과거 인천의 향토 음식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미두취인소(仁川米豆取引所)'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1930년 무렵까지는 '상품으로서 인천 고유의 음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 '인천 태생'은 아니더라도 '인천발(仁川發) 상품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시작된 인천항 축항 공사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호경기에 힘입은 미두취인소의 활황은 많은 외지 인구를 인천으로 유인했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외지 노동 인력과 일확천금을 노려 몰려든 미두 투기꾼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바로 해장국과 냉면, 그리고 추탕이었던 것이다. 밥집들은 늘어나는 매식(買食) 인구에 따라 점차 번창해서 한국 초유의 대중 외식업으로 발전했는데, 손님들의 구미에 맞게 조리된 상품 음식들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고, 자연적으로 '인천 원조 외식 메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인천 음식으로 특히 해장국이 유명했던 것은 재료가 혼해서였다.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는 양인과 일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까닭에 쇠고기 소비가 많았고, 입출항 외국 선박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었다. 인천 해장국은 바로 여기서 부산물로 남겨지는 쇠뼈 따위를 재료로 해서 탄생했다. 배추우거지와 함께 밤새 푹 곤 뼈의 진액이 우리 토장과 함께 진하게 어우러져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냈던 것이다.

서울에는 설렁탕이 진즉부터 이름이 나 있었지만 인천은 살코기는 양인, 일인이 차지하는 대신에 내장과 쇠뼈를 비롯한 풍부한 부산물로 인해 해장국이 더 발전했던 것이다. 신포동의 담뽕만이 그 맛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수년 전 문을 닫았고 송의동 평양육이 남아 홀로 성립 중에 있다.

미꾸라지는 전국 어느 하천이나 흔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추탕은 충분히 발달할 수 있었다. 지금은 팬층은 짙어 남아 있지 않지만 옛날 인천식 추탕 맛은 단연 뛰어났다. '쇠고기와 곱창을 통 미꾸라지와 함께 푹 끓여 고사리, 느타리, 토란줄기, 파, 두부를 곁들이고 갖은양념을 넣는 것'으로 특히 축항 노동자들의 애용 음식이었다고 한다. 소 내장의 끝부분에 달린, 기름기가 많아 고소한 맛을 내는 곤자소니를 넣은 추탕은 전국에서 인천밖에 없었다. 오늘날 남원 추어탕, 서울 추어탕 등의 이름을 들을 수 있으나 인천 추탕은 워낙 심한 인구의 이동으로 토박이가 거의 사라진 까닭인지 그 특색을 살리지 못한 채 절멸하고 말았다.

튀니 튀니 해도 인천 음식으로 냉면을 빼놓을 수 없다. "냉면은 그때도 저울 음식인 평양냉면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국수와 곁들이가 비슷할 뿐 국물은 동지미가 아니라 육수였다. 특히 당시로서는 귀물(貴物)이었던 얼음덩어리가 들어 있는 것이 신기했고, 사철 음식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는 구절을 고 신태범(愼兌範) 박사의 저서 『먹는 재미 사는 재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육수의 변화'와 '얼음덩어리'의 첨가가 냉면을 '인천 음식화', 그리고 '사계절화'한 결정적인 요소였다.

인현동, 용동 등지에 장대 끝에 하얀 종이 술이 달린 둥근 테두리를 매단 업소들과, 긴 냉면 목판을 어깨에 엮고 자전거를 타던 배달원의 아슬아슬한 곡예를 1950년대 보았던 기억이 있다. 또 주문에 응해 서울 종로까지 자전거 배달을 했다는 구전(口傳)은 정식 외식업 체제를 갖춘 인천 냉면집 음식이 질 또한 우수했음을 말해 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오늘날은 내동의 경인면옥이 유일하게 그때의 육수와 사리 맛을 전하고 있다.

그밖에 인천 생선 중에는 4,5월에 잡히는 세계 최고의 맛을 지닌 인천 연평도 조기와 송도 지역의 꽃게를 들 수 있다. 특히 여름 한철에는 크기와 맛에 있어서 참으로 대단했던 민어, 농어가 있었다. 새우젓과 수많은 젓갈류들, 조개류, 고둥류들도 인천의 대표 해산물이었다.

민어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도 인천의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회와 구이, 그리고 서덜 찌개가 일품이어서 1930년 전후한 무렵에는 서울의 한량들이 그 맛을 보기 위해 경인 열차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유명했던 연평도 조기 파시(波市)는 진작 전설 속으로 사라졌고, 그 좋았던 꽃게는 크기만 봐도 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어림없이 적은 것들이 잡힌다.

새우젓은 보통 음력 5월 사리 때 잡은 새우로 담근 젓을 오젓(오사리젓), 6월 젓을 육젓, 그리고 7월을 추젓이라고 부른다. 그 중 제일 맛이 좋은 상품이 바로 육젓이다. 요새는 새우젓이 거의 김장용으로만 쓰이지만 옛날에는 요긴한 반찬거리로 상에 올랐다. '술로 다친 속을 푸는 데는 특히 인천식 새우젓국이 최고였다'고 한다. 뚝배기에 적당히 물을 잡아 두부를 넣고 새우젓을 풀어 다진 마늘과 함께 한소끔 끓인 뒤 어슷하게 썬 붉은 물고추, 그리고 길게 썬 대파를 넣어 맛을 내는데 새우젓의 알칼리성이 이내 속을 다독이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아마 새우젓이 냄새가 난다고 질색을 할지 모른다.

살펴본 대로 이미 인천 전통이 끊어진 음식도 있고 아직 미미하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음식도 있다. 또 갑자기 생겨난 음식도 있다. 토박이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인천의 도시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퓨전화한 젊은 세대들의 미각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래에 생긴 쫄면이나 전에 없던 신포동 시장의 '닭강정'일 것이다. 또 개항 이후 끈질기게 터전을 잡고 살아온 중국인들이 청관 정비와 함께 다시 본격적으로 내놓는 각종 청요리와 짜장면, 근래 다시 살아난 호떡과 '공갈빵' 그리고 즉석 어묵 같은 것들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맛보던 인천 음식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 대신 들쩍지근한, 묘한 미각의 음식들이 그 빈 자리를 하나 둘 차지하고 있다.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 그 지역 토착 음식도 바뀌고 마는 것인지…….

해장국과 추탕, 그리고 냉면이 과거 인천의 향토 음식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미두취인소(仁川米豆取引所)'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1930년 무렵까지는 '상품으로서 인천 고유의 음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 '인천 태생'은 아니더라도 '인천발(仁川發) 상품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4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행복을 발효한다, 인천 소성주

행복을 발효한다, 인천 소성주

* 이번 호에는 인천지역의 탁주를 대표하는 소성주에 대한 글로 인터뷰를 대체합니다_편집자 주

2012년은

홀가분하게 가고 있다.

마음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연초에 음식에 대하여 사회과학적인 글을 쓰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세웠다 (장기적 목표는 절대미각을 개발하는 거다). 통계분석을 주로 하는 경제학자인 나였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자리에서 원고를 청탁받았다. 먹는다는 것을 주제로 종교인들이 모여 성찰적 관점에서 책을 만드는 필자로 초대받은 것이다. 계기는 늘 그렇듯 식당에서 꺼낸 나의 맛이야기 덕이다. '이 열무김치는 고랭지 산이고 물은 어떻게' 하며 수다를 떠는 주인장이 와서 맞는다고 확인을 해주었으니, 그 자리에서 난 음식전문가였다. 마침 먹는다는 것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미의 글을 고명으로 얹으려는 편집진에게 내가 발탁이 된 것이다.

실물경제를 다루는 일을 하는 내가 직업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식당이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이대 앞에서 새싹비빔밥집을 준비했지만 동업자가 포기하여 그만 둔 적이 있다. 내가 식당에 관심을 가지는 건 '착한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세상살이가 곧 경쟁이지만 직접적으로 남의 눈물을 먹고사는 직업도 많다.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투표를 하는 '정치비즈니스'는 냉정함이 한 수 위다. 그런데 식당은 세상을 아우른다. 냉면은 맛이 좋으나 뜨겁다 하면 죽하다. 짜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강남도 시골도, 네편내편도 없다. 맛이 있으면 탄탄하고 쫄쫄한 돈벌이도 된다. 내가 냉면국물을 만드는 리서치를 하려했던 것도 그런 이유이다. 먹거리는 평생 나의 관심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전업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

맛있는 것과 인연을 맺을 때마다 난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만끽한다. 바로 이 맛 때문에 세상사 온갖 고뇌, 배신, 좌절도 참을 만하다는 긍정의 파도가 온몸을 휘감는다. 그런 행복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로망이자, 노후계획이자, 여생을 농익게 살아내는 것일 게다. 최근 몇 년 간은 인생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기로 삼고 있다. 지난 몇 년은 전국의 간장과 된장을 가까이 했다. 인생 레시피에 적을 만한 몇몇을 찾아낼 수 있었다. 작년부터는 꽃차를 따라 강원도 인제, 양양과 연을 맺고 있다. 올 봄에는 산수유를 찾아 포천 천보산에서 일박을 했다.

새로운 맛이나 음식을 맛볼 때면 난 눈을 지그시 감는다. 음식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온 신경을 혀와 머리에 몰입한다. 맛을 갈라 치고 깊이를 잴다(맛에도 깊은 맛과 얕은맛이 있다). 국물은 끝맛이 중요하다. 화학성분과 천연재료가 판명되는 것이 끝맛이다. 음식 성분을 뽑아내고 요리법을 잡아내려고 한다. 한동안 노력을 하니 웬만큼 알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양주는 맛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겠다. 소주도, 증곡술도 마찬가지이다. 술중에서 단 하나, 막걸리는 맛을 알만하다. 어릴 적 주전자에서 받아오며 한 모금씩 마시던 것부터 한다면 40년 이상 가까이 했으니 녀석을 어느 정도 알만도 하다.



내가 부평에 있는 소성주 공장을 찾은 것도 행복자산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만하다. 소성주를 처음 맛본 것은 이년 전이다. 지역에 가면 지역 먹거리를 찾듯이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것이 소성주이다. 소성주(邵城酎)는 신라 경덕왕 때 붙여진 인천의 옛 지명 소성현(邵城縣)에서 따온 것이다. 1938년 대화주조가 설립되었고, 1974년 인천지역의 11개 양조장이 합병한 회사이다. 1990년 탁주업계



최초로 쌀막걸리를 생산했다. 하루 평균 생산량은 750ml 병 20개가 들어가는 박스 2000~2500개 정도로, 인천지역 막걸리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 300m에서 퍼 올린 물을 사용한다.



전국에 막걸리도가가 수백 개가 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면단위 소재지에서 고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술도가가 꽤 많았다고 한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팔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장수, 전주, 이동막걸리라 할 만하다. 시장점유율을 본다면 국순당이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섰으나 역사가 짧은 탓인지 아직 마음까지 숙성된 맛이 흐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 음식맛의 개념은 단맛이긴 하지만, 장수막걸리는 단맛이 지나친 것이 흠이다.

소성주는 단맛을 거의 느낄 수 없고 텁텁하면서도 상쾌한 청량미가 도드라진다. 작년에 전국의 막걸리에 대하여 맛을 중심으로 예닐곱 권의 책을 읽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소성주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적었다. 서울의 장수막걸리, 전주막걸리, 포천 이동막걸리, 부산 산성막걸리, 제주도 오메기술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배다리막걸리, 노무현 대통령의 소백산 대강막걸리 등등.

소성주를 마실 때마다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내 판단으로 소성주 맛은 상위 5%급이다. 단맛을 계속 누르고 쏘는 맛을 높인다면 더욱 명품이 될 성싶다. 거기에 텁텁한 맛의 강도를 조절하여 제품의 다양성을 꾀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단맛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막걸리가 단맛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싼 맛에 먹는다'는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거다. 사실 단맛은 싼 맛이다. 탁 쏘면서 텁텁한 맛을 중심 개념으로 새로운 맛을 제시하는 것이 막걸리에 대한 수요와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길이 될 듯하다.



▲ 인천탁주 실험실 이진경 실장에게 소성주 만드는 과정에 대해 듣고 있다.

만약 지금 소성주가 경영적으로 확대를 원한다면 제품개발보다 마케팅이 먼저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시도가 꼭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회사가 존속할 수만 있다면 맛을 지키고 높이는 것이 장기적이고 사회적으로 권장할 만하다. 대부분의 소문난 맛집들이 건물충수를 높이는 순간 옛맛이 사라져 버리지 않는가.

지역사회에서 소성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소성주가 인천의 행복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시안게임도 열리고 세계음식거리가 생긴다고 한다. 그곳에서 소성주박물관을 보고 싶은 것은 망상일까?

■ 글 : 조 승 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 사진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내가 부평에 있는 소성주 공장을 찾은 것도 행복자산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만하다. 소성주를 처음 맛본 것은 이년 전이다. 지역에 가면 지역 먹거리를 찾듯이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것이 소성주이다. 소성주(邵城酎)는 신라 경덕왕 때 붙여진 인천의 옛 지명 소성현(邵城縣)에서 따온 것이다. 1938년 대화주조가 설립되었고, 1974년 인천지역의 11개 양조장이 합병한 회사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4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대도시권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연구성과발표 및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달에 이어 실·국 대상 연구성과발표 및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경제수도본부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해당 실·국장 및 소속 과장과 우리 연구원 김민배원장을 비롯한 부원장, 기획본부장, 정책연구실장과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정책부서와 연구원 간 시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획관리실> ● 지방소비세 증가(5~10%)와 관련한 정부의 지방정부 배분을 조정해 대한 인천시 대응방안 연구 ● 민선5기 핵심사업인 3-Care의 집행과 관련한 전문가로서의 아이디어 발굴 · 제시를, <자치행정국>은 ● 인천시 재정확충과 관련한 아이디어 제시 ●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선방향 검토 ●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을, <건설교통국>은 ●저상버스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화물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복구비용 징수 근거 마련 ● 7호선 연장선 개통 관련 인천관할 3개 역사의 인천시 운영 시 손익분석연구 ● 영종출입 시내버스노선의 입석허용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정책, 기본 등 연구과제의 정책부서별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연구원에서는 시정 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천의 모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연구원 채용 등 운영개선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연구사업 선정 등의 운영 시 정책부서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별도의 연구과제가 아닌 연구자문 등의 요구사항은 연구분야별로 연구과제 및 시정자문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과 연구주제로 제안된 안전에 대해서는 하반기 연구과제(기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은 기획과제 형태로 추진한다는 조치계획을 밝혔다.

■ 인천대도시권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와 공동으로 지난 4월 3일 오후 2시부터 송도 미추홀타워(2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도시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광역위원회 등과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세계적인 교통·물류인프라와 경제자유구역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 연구원은 '인천대도시권 해양산업 발전방안'과 '인천대도시권 광역교통 발전전략'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은 '국제도시 IFEZ(인천)의 잠재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민배 원장 주재로 지자체, 지역 경제단체와 언론기관, 학계와 연구원 등이 폭넓게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홍철 위원장은 "서울이 국제기능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국제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국제화와 개방화를 이끌어 왔던 인천이 역할을 나눠 가져야 한다"면서 "170km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국제교통의 요충지로서 인천지역이 국제도시로 성장해 나가야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천신항의 개발 등을 통해 해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인천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천과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 지속가능 경제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4월 17일,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 경제발전 ; 인천시의 보완적 정책개발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은상 교수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경제학)가 발표자로,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의장과 우리 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조승현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행사는 인천이 처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의 약화, 일자리 위기, 글로벌 경쟁력 쇠퇴, 사회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으로, 인천형 경제발전 모델의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2012 상반기 전직원 워크숍 개회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4월 13일, 영종도 일대로 2012년 상반기 전직원 워크숍을 다녀왔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 및 연구원 운영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 목적에 따라 꾸지수목원과 에너지파크 등을 차례로 더 방문하고, 이후에 에너지파크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와 공동으로 지난 4월 3일 오후 2시부터 송도 미추홀타워(2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도시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광역위원회 등과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세계적인 교통·물류인프라와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4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반가운 인사 한마디에도 정(情)을 느껴요”_청결지킴이

4월에 만난 idi people

“반가운 인사 한마디에도 정(情)을 느껴요”

-성봉례, 서연순, 윤경애_청결지킴이

“아프리에 올해, Zoom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솔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러 갑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고마운 청결 지킴이이자
배드민턴과 탁구 심비군(?)으로
활약하는 청소 아주머니들을,
4월, 진달래 핀
연구원 마당에서 만났다.

◀좌로부터 서연순, 성봉례, 윤경애 아주머니

왕언니 격인 성봉례 아주머니와 서연순 아주머니는 2005년 4월부터 연구원과 인연을 맺었고, 막내인 윤경애 아주머니는 작년 11월에 입사해 베테랑인 두 언니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성봉례 아주머니는 본관 1층, 별관 1층을, 서연순 아주머니는 본관 3층과 별관 2, 3층을, 윤경애 아주머니는 본관 2층을 담당하고 있다.

성봉례, 서연순, 윤경애 아주머니는 연구원에서 일하는 것이 매일매일 보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몸을 담고 있는 한 내 집이고, 내 식구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서 청소도 더 깨끗이 하게 되고, 직원들도 더 반갑고 정이 가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연구원처럼 공기 좋은 곳에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일하고 싶고, 연구원을 떠나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든 찾아 일을 계속 할 생각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휴가 떠나 사정상 셋이 일하다 둘이 일하게 될 경우에 조금 더 힘들고, 평소에는 관찮은데 폭설이나 장마가 내릴 때 소방교육원 입구 쓰레기 소각장까지 걸어가야 할 경우, 그리고 최근에 변전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을음 청소하느라 애먹은 점 말고는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다고 말한다. 한가지, 화장실이 가끔 휴지통치로 인해 막힐 경우와 불일을 보고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고 갈 때가 더러워서 고역일 때가 있다고, 이 부분은 연구원 직원들이 주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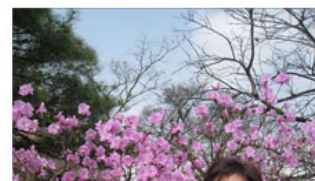
윤경애 아주머니는 두 아주머니에 비해 청소 일이 처음이다. 연구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제품 검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근무해서 개인 시간이 부족했는데, 연구원에서 일하면서부터는 아직 몸에 완전히 익지 않아서 다소 힘들기는 하지만, 반면에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 신경써줄 시간도 많아지고 개인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일도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니까 체중도 감량됐다.

잠잠이 쉬는 시간에는 하루 지난 신문도 살펴보고, 수거한 책 중에 불만찬 책이나 잡지들도 읽고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성봉례 아주머니는 성경책을 즐겨 읽는다.

아주머니들은 또, 다른 곳에서 청소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 방은 정말 정리 정돈이 잘된 편이라고 칭찬한다.

그리고, 세 아주머니 모두 건강만 따라주면 연구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다. 현재 성봉례 아주머니는 60세가 넘었는데도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서연순 아주머니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됐다. 윤경애 아주머니도 2년 후에는 무기계약직이 될 것이다.

서봉례 아주머니는 청소하는 이후 65세 이사가까지도 거트하 거



같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가능한 일이지 다들 집에 돌아가서도 공원을 걷고, 주말에도 틈틈이 등산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서연순 아주머니는 몇 년 전, 아침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초병연구원자리에 아주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세요' 라는 메모를 보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줬다는 생각에 고마움과 보람을 동시에 느낀 기억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연구원 직원 한사람 한사람 정이 많이 간다고. 내가 먼저 못봐도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하는 소소한 것에서 정을 느끼고 있다. 성봉례 아주머니 역시 마찬가지. 인사 한마디라도 반갑게 해주면 뒤편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요즘 더러 새로 온 직원 중에 서로 마주쳐도 인사를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럴수록 본인이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이다.

아주머니들에게 개인적인 취미도 물어보았다.

성봉례 아주머니는 스포츠 댄스를 한참 배웠는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고. 서연순 아주머니는 흘러간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 잘은 못 부르지만 흥얼거리는 것이 즐겁고 흥이 난다. 윤경애 아주머니는 여가 중에도 신앙생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또한, 서연순 아주머니는 '연구원 박사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인천을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 인천 재정이 워낙 안좋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 잘 사는 인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다. 성봉례 아주머니는 '연구원 직원들이 다복한 분위기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일하는 곳이 부강해야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안정적인 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을 떠나게 된다면 성봉례, 서연순 아주머니는 건강만 하다면 봉사가 됐든 일이 됐든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할 생각이다.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도 생각하고 있다. 윤경애 아주머니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깊어 새벽기도 가기 쉽도록 교회 근처로 이사한 만큼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계획이다. 집에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5시 30분이면 도착, 6시에 일을 시작하는 아주머니들은 요새는 환승도 되고, 차편도 많아지고, 빨리 출근하는 만큼 차도 안 막힌다고 좋아한다.

연구원 사람들을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늘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세 아주머니들. 누구보다 부지런히, 분주히 아침을 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이 있어 연구원은 오늘도 불링불링하다.

아주머니들은 인터뷰가 끝나고, 남은 점심시간 십여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탁구 잠깐은 칠 수 있겠다며 서둘러 체육관으로 향했다.



■ 글·사진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우리 연구원의 고마운 청결 지킴이이자 배드민턴과 탁구 상비군(?)으로 활약하는 청소 아주머니들을 4월, 진달래 핀 연구원 마당에서 만났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4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제물량로 2 : 만국공원과 일본공원

인천의 길 이야기 4



글/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제물량로는 인천역을 거쳐 차이나타운과 파라다이스 호텔 사이의 언덕길을 지나 해안동, 신포동 신항동으로 이어진다. 이 길 연변은 말 그대로 인천 개항사와 한국 근대사의 노천 박물관들이다. 제물량로가 관통하는 곳은 청국 조계지와 일본 조계지, 서양인들이 거주했던 각국 조계지 일대의 개항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건축물이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해방 후 60여년의 세월 속에 허물어지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유산들은 현존하고 있다.

이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는 자유공원 전망대다.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조계지 계단도 개항장의 특징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다. 자유공원에 오르면 인천의 근대사와 한국의 근대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 땅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한국전쟁의 전장이었던 월미도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한국최초의 서양식 건축이었던 세창양행 사옥, 인천의 랜드마크였던 존스턴 별장, 근대식 기상관측시설인 관측소의 유적이 경내에 있다. 또한 개항 이래 근대문물이 유입되고, 내외국인이 왕래한 인천항과 갑문시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조계지 계단

또한 자유공원 자체도 인천의 근현대사를 압축한 역사적 장소다. 자유공원은 [각국공원]으로 시작한다. 각국공원은 파고다공원보다 9년이나 먼저 조성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는 역사 문화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만국공원 혹은 각국공원, 서공원, 자유공원으로 불리면서 오랫동안 인천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그 점에서 만국공원은 다문화 융합의 역사를 지닌 개항장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공원이다. 이 공원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과 같은 서양 국가들의 국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조계지

내에 위치해 있었던 관계로 일종의 문화접면지대로 기능했다. 이러한 다문화 융합성의 아우라^{aura}는 공원의 명칭과 공원의 공간 배치, 및 건축물의 양식 등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개별 건축물의 건립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인천의 잊힌 공원 중의 하나는 일본공원 혹은 동공원이다. 일본공원은 지금 인천여상이 자리 잡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교정 곳곳에는 석등이나 계단석과 같은 옛 일본공원과 인천신사의 유물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일본공원 건립 당시 인천부청(현 중구청)의 남방 800m 거리의 해변의 작은 구릉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공원 가운데에는 대신궁을 비롯한 신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궁이나 신사로 불렸다. 공원 입구에는 일본인 묘지가 있었고, 공원 언덕 왼쪽에 인천 최대의 요정 아사카로가 있었다. 언덕 정상에 남향으로 천조대신궁, 이나리 신사, 고토히라 신사, 천만궁, 에마도^{에마도} 등의 신전 건물들이 위치해 있었다.



일본공원이 있던 자리(현 인천여상)



인천여상 내에 남아 있는 일본신사 유물



인천여상 내에 남아 있는 일본공원의 석등

이처럼 인보고원은 개항 7년째인 1884년 이척거리미회가 인보고원 조성을 위해 거리미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다소몬 부웅^{テウ}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890년에 본격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었고 공원 경내에 신전이 건립되었으며, 이 신전은 10월 일본의 이세대신궁^{伊勢大神宮}에서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신체를 분양받아 안치하고 인천대신궁으로 명명했다. 매년 5월 11일을 대제일로 정해 축제를 열었으며, 거류민단의 기금과 신자들의 기부금으로 유지·운영하였다.

1914년 부제^{附則}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본공원과 신궁의 관리는 인천부청으로 이관되었다. 4월에는 인천에 설치되었던 유럽인 조계지인 각국 거류지가 철폐되었다. 각국 거류지에 조성되었던 각국공원을 사공원^{私公園}으로 개칭하고, 일본공원은 동공원^{東公園}으로 개칭했다.²⁾

1915년 3월에는 인천부윤의 책임 하에 신사를 운영하기 위해 신자^{神者} 조직을 새로 구성하고, 1만원을 들여 신전과 배전을 개축하였으며 대제일을 10월 11일로 변경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총독부에서 신사의 설립 기준과 인가 절차를 담은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신궁]으로 통칭되고 있던 인천의 신도 사설은 [인천신사]^{仁川神社}로 개칭된다.³⁾

이후 일본공원은 동공원, 대신궁은 인천신사로 불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인들의 자발적인 민간신앙이었던 신사가 각종 법률이나 규칙의 뒷받침을 받으며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기구의 구성 부분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사가 위치한 공간의 성격도 초기 설립 취지였던 휴식과 위락, 일본인들의 민간 신앙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에서 황국신민을 양성^{養成}하는⁴⁾ 훈육장으로, 식민지 지배 이념 구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 동공원과 인천신사는 진주한 미군이 접수하여 사용하다가 인천여상 부지로 제공되었다.

인천 일본공원을 주로 이용한 사람들은 인천 일본인 거류민들이었다. 일본공원이 바로 이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조성된 공원이었으며, 공원 경내의 신사는 해외 거주자인 일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본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정서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원 입구에는 수명루와 명월루라는 큰 주점과 음식점이 있어 위락장소로서 기능을 맡았다. 일본공원 조성 직후의 분위기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아오야마 요시헤^{青山正雄}의 방문기가 남아 있다.

일본공원은 인천시가의 교외 동쪽 몇 개의 언덕, 바다에 임한 곳에 있다. 공원 안은 사계동안 수목이 번성하고 꽃도 흐드러지게 피어 특히 아름다운 볼거리다. 게다가 아름다운 풍광이 풍부하고, 제물포의 경치나 원근의 자연 경치가 모두 한눈에 보인다. 공원 중앙에 천조황대신궁을 안치하고, 봄, 가을에 두 번 제^祭를 지낸다. 공원 안에 술집이 둘 있는데 수명루^{水命樓}가 그 하나이다. 수명루는 원래 제일루^{第一樓}로 부르던 청아한 누각으로 맑은 술, 아름다운 작부가 많고 조망이 아름다웠다. 거문고 타는 소리가 항상 언덕을 씻는 물결소리와 어우러져 끊이지 않는 까닭이라, 뜻밖에 기러기 두세 마리 소리가 들려 하늘너머 우는 것을 들으니, 여기에서 손님의 마음은 점점 비참함과 우수에 건널 수 없어, 서서히 절음을 돌린다. 홀연히 피리 소리가 신궁 주변에서 들려왔다. 그 음은 차량하고 기락은 비참했다. 오호라 나는 본래 불행하고 불우하여 아역만리 떠도는 몸으로 그 피리 소리를 들으니 사뭇 단장의 정을 억누를 수 없다.⁵⁾

아오야마의 방문기는 일본공원이 조성된 이듬해인 1891년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일본공원의 특징 가운데 해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풍광과 조망이 뛰어난 곳이라는 점과 아름다운 작부와 음악이 있는 주루^{酒樓}를 강조하고 있다. 공원의 주요 사설인 대신궁과 춘추대제에 대해서는 사실만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이다. 그에게 대신궁 주변의 피리 소리는 **이역만리를 떠도는** 나그네의 사향심을 사무치게 하는 망향기^{望郷気}였다.

일본공원 조성 직후의 또 다른 자료는 요코세 후미코^{横瀬文子}가 남긴 일본공원과 공원의 주루^{酒樓}를 소재로 한 세편의 한시와 그 주석으로 일본공원에 대한 1893년 초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저자인 요코세가 인천에 처음 온 것은 1892년 4월이었으나 그해 7월에 동경으로 되돌아갔다가 1892년 말 동료인 마스모도^{末本正雄}와 함께 인천전환국^{仁川換國}의 감독 대리인 자격으로 인천에 아주하였다가 1893년 말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인천잡시]의 작품들은 주로 1893년 1,2월경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공원과 관련된 작품으로 [일본공원], [공원주루 1], [공원주루 2], [묘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1893년 오사카에서 발간된 [인천잡시^{仁川雜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문명의 기운은 동쪽으로부터 일어났으니
다른 사람이 이 공적 빼앗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진중한 우리 국민 충후한 기운으로
공원에서 먼저 태신궁에 제를 올린다.
[일본공원] 전문⁹⁾

이들은 아내가 아닌 꿈속의 사람으로
새로운 비석이 물가에 늘어섰다
風塵속의 오늘도 자취조차 없는데
踏靑나온 아이들은 웃으며 이야기한다.
[墓地] 전문

화려한 난간 앞에서 나직히 노래 부르며 술을 마시니
만경의 잔잔한 파도 아득하여 연기 같도다.
명월루이니 의당 달 밝은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신선이 된 듯.

누가 공원의 짧은 봄을 차지하는가?
수명과 명월이 이웃해 있다.
분향기와 귀밀털의 미인 어느 곳이 더 좋은가?
정도 많고 한도 많은 사람 온통 넋을 뺏긴다.
[公園酒樓] 1·2

[일본공원]에서 요코세는 일본공원이 해외의 조차지에 일본인들이 스스로 설치하여 국조^{國祖}에게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만 지닌 **충성심**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두 번째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 **묘지**란 일본 공원 입구에 설치된 일본군 묘지로,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 당시에 사망한 일본 군인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위령비를 세웠다. 요코세는 일본이 조선에서 겪은 커다란 역사적 사건은 10여년이 지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으며, 사건 당시 희생자의 무덤 주변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또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조선과 일본 두 국가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우의가 돈독해지고 있다고 보았다.¹⁰ [공원주루]는 일본공원의 명소로 알려진 두 주점, 명월루^{명月樓}와 수명루^{水命樓}의 화려한 유흥을 읊은 것이다. 두 주점은 파도치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여기서 음악을 들으면 신선이 된 듯하고, 냇을 뱃길 정도로 아름다운 기녀들이 많아 아쉬운 봄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공원은 조성 이후 상당기간 인천 거주 일본인들에게 신궁이 있는 공원으로 여겨졌으며, 공원 입구의 두 유흥 주점은 휴식과 위락의 공간에 위치한 시설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간 인식은 [신찬인천사정](1898)에서 일본공원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공원은 거류지에서 동쪽으로 몇 구획 떨어져 있고, 남쪽은 바다에 면한 구릉에 자리 잡고 있다. 나무가 울창하게 땅을 뒤덮고 있으며, 조망이 뛰어나 멀고 가까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언덕 위에는 대산궁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참배객이 끊이지 않고, 아사카로^{アサカ}와 메이게쓰로^{メイゲツ}가 바닷가에 접한 곳에 나란히 있어서 밤마다 관현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긴 여름 불벌더위에는 가장 가슴을 상쾌하게 해주고, 달밤에 이곳을 거닐면 항구와 앞바다에 떠 있는 섬들의 정취가 더한층 마음을 끌어당긴다. 일본요지는 1884년의 사변으로 죽은 이소바야시^{伊藤野矢} 대위¹¹의 묘비가 있고, 1894~1995년의 전사자들의 애도비¹² 悼碑가 있다. 그 밖에 수십 수백 개의 묘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¹²

일본공원은 아침, 저녁으로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대산궁과 밤마다 관현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팔판루와 명월루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당시의 인천 일본인들은 육체적 휴식과 정신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건하고 고적한 공원의 분위기와 외설스런 음악과 육정^{肉情} 분분한 유흥가의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발견된다.

제물량로 일대를 답사하다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극심한 변화의 연속이었던가를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분단, 그리고 본격적 산업화와 현대화는 불과 10여 년 전의 풍경도 낯설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공간들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으나 정겨운 장소들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문화유산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훼손되었다는 점을 근본적 반성하고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라 불리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가리킨다. 아마테라스를 제사 지내는 신사는 황대산궁^{皇代山宮} 및 이세산궁^{伊勢山宮}이다.
- 2) 인천항
- 3) 인천항
- 4) 일본 제국주의는 피지배 민족을 포함한 전 국민을 황국의 대상으로 보고, 모든 교육의 목표는 [황국신민의 연성]이었다. 이때 연성이란 [언어^{言語} 육성^{육성}]의 줄임말로 일본도의 단련^{단련}에 빗대어 교육을 설명한 것이다.
- 5) 아오야마 요시헤^{青柳芳平}는 오사카 아사히신문^{朝日新聞} 한국통신원으로 1893년경 인천에 파견되어 와서 각주간 신문으로 발행되던 <仁川京城新聞商報>(1890.1.28)와 그 후신인 <朝鮮旬報>(1891.9.1), <朝鮮新報>(1892.4.15)를 발간하고, <仁川活版所>의(1899년 가을) 설립을 주도하는 등 언론·출판 사업을 펼쳐 식민정책을 대변한 인물이다. 최초의 인천민내사인 [인천사정^{仁川事情}](1892)을 편찬자이기도 하다.
- 6) [仁川府史], p. 34-5 및 靑山好惠, [仁川事情](仁川:朝鮮新報社, 1892), pp.51-52.
- 7) 그의 동료 마쓰모토(松本正純) 역시 문필가로 [金玉均評傳](1894)을 간행할 정도로 조선 정세에 밝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쓰모토는 1892년 2월 이전에 전한국를 그만두고 한양으로 옮겨 다른 일에 종사한 한 것으로 보인다.
- 8) 김창수, [개항기 기행 한시에 나타난 식민 도시], 인하대 한국학과 민족문화사연구소 공동심포지움 [한국문학의 로컬리티와 지정학적 상상력] 발표문, (2011년 8월 23일)
- 9) 日本公團(在濟物浦東端): 文明之運起從東, 不許他人奪此功. 珍重我民忠厚氣, 公園先祭太神宮.
- 10) 이 작품에 대한 마쓰모토는 [화목환이 새로이 점차 두터워지니 오랜 원한은 아예 흩어졌다. 두나라의 교의를 깨닫고 아예 따라 더욱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졌다]고 평하고 있다.
- 11) 1884년 10월 갑산정변 당시 조선 민중들이 일본영사관을 방화하였을 때 살해된 영사관 소속 무관
- 12) [신찬인천사정], 조선신보사, 1898.

Photo Essay



제 연구실 창가에는 갈대로 엮은 발이 있습니다.
책과 찻잔이 올려져있죠. 따뜻한 햇살과 히터가 있어 만사태평인 녀석입니다.
지난 가을 구절초를 말리려고 지금 그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책상 옆 탁자를 차지하고 있어 이 손님 저 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갈대자리가 잘 어울린다며 귀한 듯 눈길을 주고 손길로 어루만지며 값을 물어보곤 했지요.
실은, 여름날 책상 밑에 깔려고 3천 원을 주고 산 수입산 싸구려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건 물건만이 아니겠지요.
정치의 계절도 좋지만, 여러분은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나요?

글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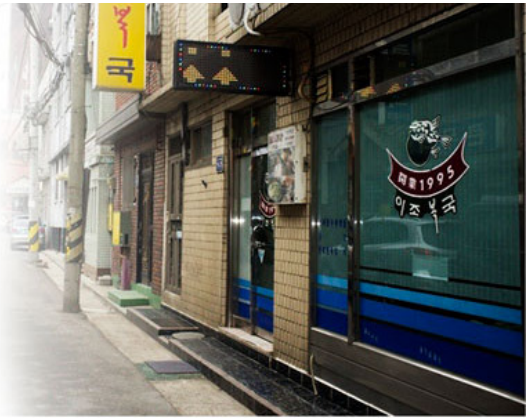
장을 품은 복,
그 치평적인 맛



이조복집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겨울철에 몸을 보하기 좋은, 따뜻한 음식 중에 하나가 복요리일 것이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봄을 잊은 봄철에도 복어는 맛있는 요리일 듯 싶다. 제물랑길을 따라 걷다 만난 맛집은 1995년에 개업한 17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조복국**.

간간한 조개젓과 맛있게 익은 열무김치, 쉽게 볼 수 없는 달큰한 가재장, 찰조름한 무침지 무침, 밴탱이젓이 큼직하게 들어간 순무김치까지... 밀반찬만으로도 밥 한공기는 푹딱 해치울만한 메뉴와 맛이다. 그리고 싱싱한 미나리가 깔린 복겅질 서비스까지 나오는데, 싱싱한 미나리와 쫄깃한 복겅질을 초장에 찍어먹는 맛이 향긋하다. 봄을 먹는 기분 아닐까?



복겅질



가재장



열무김치

우선 복튀김(중, 15,000원/ 대, 20,000원)을 주문했다. 깨끗한 기름에 노랗게 튀겨진 복튀김은 손질이 잘된 하얀 속살이 보드랍고 담백하고 고소하다. 전혀 느끼하지도 않아서 어른들 술안주로도, 아이들 영양만점 간식으로든 손색이 없는 맛이다.

복찜(45,000원)은 보통의 아구찜이나 불태기찜과 같은 양념과 모양새라고 할 수 있지만, 찜요리의 기본이랄 수 있는 콩나물이 상상하다. 익세고, 긴 콩나물이 아닌 잘면서도 달고 가지런한, 집에서 키운 콩나물처럼 순하고 아삭하다. 복어살도 부드러우면서 쫄쫄한 식감이 매력적이고 전혀 맵지 않으면서도 찜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는 맛에, 자꾸만 손이 가고, 양념을 넣어 밥을 비벼 먹게 되는 그런 중독성 있는 맛이다.



복튀김

복찜

마지막으로, 이조복국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메뉴에 **중탕**(된장, 12,000원)이라 표기된 그것. 여느 복요리집처럼 지리나 매운탕도 있지만, 이 집의 중탕은 된장을 풀어내 맛을 낸 것이다. 된장이 좋아서인지, 텅텅한 맛이 전혀 없고, 깔끔하고, 시원하고, 구수한 국물이 속풀이 해장용으로도 훌륭한 맛이다. 해독 작용을 돕는다는 미나리도 많고, 주로 탕에 넣는 작은 졸복들도 푸짐하고, 쫄깃하다. 고추냉이 푼 간장에 탱글탱글한 졸복을 찍어 먹는 맛이 좋다. 지리(12,000원)도 맑고, 담백하지만, 중탕에 감동한 탓인지, 지리는 다른 복요리집의 맛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트 메뉴(생복+튀김+겅질, 22,000원/찜+튀김+겅질+무침+생복, 30,000원)도 구성해 놓았으니 기호에 맞게 드시길 권한다.



중탕



지리



식사가 끝난 후에 디저트로 나오는 호박식혜도 단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맛있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하자 사장님은 이조복국의 비법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대신 귀한 황복이 나올 땐 연락을 주시겠다며 명함을 요구하신다. 이조복국은 주차가 다소 불편하다는 점을 제외하곤 강추할만한 식당이다.

복어는 그 종류만 해도 참복, 황복, 자주복, 은복, 까치복, 줄복 등 120~130종에 이르고, 산란기 때는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이 청산가리의 10배에 이르는 위험한 어류라 전문가의 손길이 없이 요리되면 자칫 비명횡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복송 시대의 시인 소동파는 복어 맛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맞먹는 맛**이라 극찬했고, 복어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복어를 먹지 않는 사람에겐 후지산을 보여주지 말라**고 한다. 다시 말해 복어는 죽음과 맛바꿀만한 치명적인 맛을 지닌 귀하고, 복스러운 음식임이 증명된 것. 세계 4대 진미로도 꼽히는 복어의 그 핫한 맛과 소동파의 기분을 이조복국의 중탕으로 대신 느껴보자.

☞ 주소 : 인천시 중구 사동 17-3 ☎전화번호 : 032-761-7211



제물량로는 인천역을 거쳐 차이나타운과 파라다이스 호텔 사이의 언덕길을 지나 해안동, 신포동 신흥동으로 이어진다. 이 길 연변은 말 그대로 인천 개항사와 한국 근대사의 노천 박물관들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4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적, 열정적인 파티 문화가 공존하는 신비의 섬, 이비사



김효진 (PMC 네트워크 페스티벌 사업본부 차장)

전세계 클럽 문화의 메카, 크레이지 아일랜드(Crazy Island)

지중해 서부,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 서남부에 있는 이비사(Ibiza) 섬은 1년 내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제주도 2배 크기의 이 섬에는 50여 개의 아름다운 해변이 늘어서 있고, 그 해변가에 차려진 세계 최대 규모의 여러 클럽에서 1년 365일 연중무휴로 파티와 클럽빙(clubbing)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여름에는 히피, 패션광, 누드족의 젊은이들이 섬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띈다.

해가 지면 이비사는 세계적인 톱 DJ들의 디제잉(DJing)과 화려한 빅 파티를 즐기려는 클러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나이트 클럽으로 변신한다.

이비사의 대표적인 클럽으로는 프리빌리지(Privilege), 스페이스(Space), 암네시아(Amnesia) 등이 손꼽힌다. 먼저 프리빌리지는 약 만 여명의 수용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으로 높은 천장과 넓은 댄스플로어, 수영장 위에 떠 있는 DJ 부스가 특징인 클럽이다. 수 차례 '세계 최고의 클럽'에 뽑힌 스페이스는 일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계속되는 22시간 파티 'We Love Sundays'와 야외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디제잉으로 유명하다. 영국 Cream 클럽의 여름 파티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암네시아는 천장에서 물과 거품이 쏟아져 내리는 '폼 파티(Foam Party)'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모래 사장에서 펼쳐지는 풀문(Full Moon) 파티, 선상에서 열리는 크루즈 파티 등 다양한 형식의 파티를 이비사 섬에서 만끽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클럽 투어를 즐기려는 파티광들을 위해 각 클럽을 순회하는 '디스코 버스'가 밤새도록 운행된다고 하니 전 세계 클러버들이 이비사에 열광할 수 밖에.

그렇다면, 음악과 춤이 끊일 날이 없는 환상의 지상 낙원 이비사의 클럽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이는 1960년대 히피 문화로부터 연유하였다고 한다. 그 시기 정부의 구속을 피해 몰려든 히피들이 이비사 섬에 그들 삶의 터전을 잡고, 누드 비치, 클럽 파티 등과 같은 히피 문화를 구속 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들을 겨냥한 클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후 관광 산업과 결합되어 오늘날의 이비사가 되었다고 한다.

히피 문화를 배척하지 않은 섬 주민들의 배려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원조로 오늘날 '세계 젊은이들의 파라다이스' 이비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이비사 해변



그림 2. 이비사 구시가지

지중해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복합 문화유산

이비사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독특한 해안 생태계와 긴 역사를 지닌 고고한 유적들이 어우러져 있어 1999년, 유네스코 세계 복합 문화유산 (UNESCO World Heritage Site / Biodiversity and Culture)으로 지정되었다.

연중 300일 이상 맑은 하늘과 쾌적한 지중해성 기후를 자랑하는 이비사 주변 해안의 해저 초원에는 희귀한 어류와 극피동물이 살고, 바위 절벽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는 또한 유구한 지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다. 좋은 예로, 이비사 타운 (Ibiza Town) 근처에 있는 달트 빌라(Dalt Villa)는 16세기 르네상스시대의 뛰어난 군사건축물로서 이곳에 초기 페니키아시대 주거지와 아랍, 카르타고 시대의 유적을 계승한 도시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유적, 파티 문화가 공존하는 이비사는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휴양지로 널리 사랑 받으며,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비사로 가는 직항편은 없고, 유럽을 경유해야 한다. 영국 런던에서 라이언 에어(Ryan Air), 이지젯(EasyJet)과 같은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 방법과 스페인 주요도시에서 이비사로 취항하는 스페인 에어(Span Air), 부엘링 항공 (Vueling Airlines SA)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자료>

SBS인터넷뉴스부, '다양한 문화 보존이 우선' 스페인의 관용, [SBS스페셜], 2008-11-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144579>
송동근기자, '미쉐린과 함께 하는 유럽 엿보기' 스페인 이비사, [파이낸셜뉴스], 2007-08-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0335792>
이형준 작가, '푸르고 푸른 섬, 시간이 멈춘 극형정 시대', [중앙선데이], 2010-1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53&aid=0000003386>
Wikipedia [Ibiza], 2012-04-07 <http://en.wikipedia.org/wiki/Ibiza>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이비사 생물다양성과 문화이비사 생물다양성과 문화]
http://doopedia.co.kr/m/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03228 (2012-04-10)
암네시아 클럽 <http://www.amnesia.es/> (2012-04-07)
프리빌리지 클럽 <http://www.privilegeibiza.com/> (2012-04-07)
스페이스 클럽 <http://www.spaceibiza.com> (2012-04-08)

지중해 서부,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 서남부에 있는 이비사(Ibiza) 섬은 1년 내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제주도 2배 크기의 이 섬에는 50여 개의 아름다운 해변이 늘어서 있고, 그 해변가에 차려진 세계 최대 규모의 여러 클럽에서 1년 365일 연중무휴로 파티와 클럽bing(clubbing)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여름에는 히피, 패션광, 누드족의 젊은이들이 섬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띈다.

스포츠, 레저, 독서 활동 시간 사용 변화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4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스포츠, 레저, 독서 활동 시간 사용 변화

도시경영연구부 조 승 현 연구위원 / 도시인문학센터 김 보 경 전문연구원

지난 십년 동안(1999~2009) 인천시민들이 교제 및 여가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2004년에 4시간 55분으로 1999년 보다 12분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4시간 28분으로 십 년 사이에 가장 적었다. 운동과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이러한 여파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스포츠와 야외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나 사용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독서 시간도 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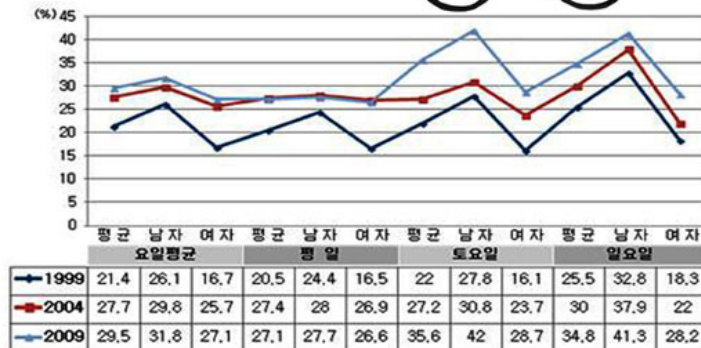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활동¹⁾

여자들의 비율이 남자들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절대적 참가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전체적으로 20% 초반 대이던 활동 참여율이 30%로 증가하였다. 2009년 통계를 보면, 토요일의 경우 남자가 28%에서 42%, 여자는 16%에서 29%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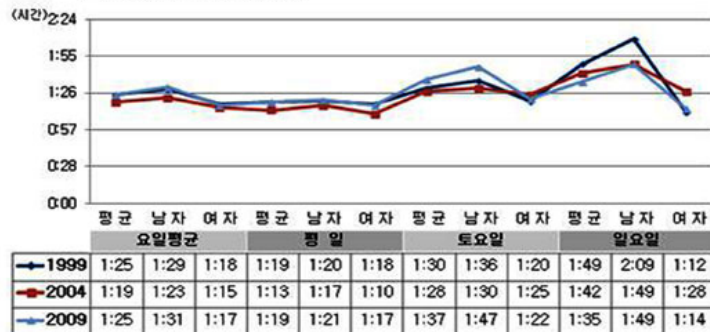
활동에 걸리는 시간의 변화는 남녀 요일에 따라 다르다. 남자의 경우 토요일에 96분이던 것이 107분으로 늘어났으나 평일에는 1분 정도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반면 일요일에는 129분에서 109분으로 20분이나 대폭 줄어들었다. 여자는 활동 시간의 변화가 상당히 적었다.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활동 비율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활동 시간



독서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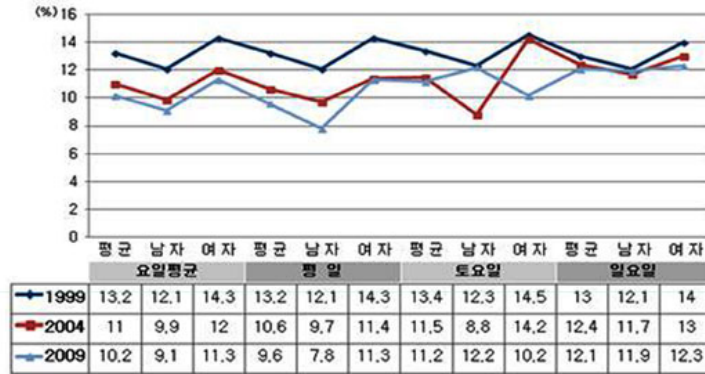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평일에 독서하는 사람의 비율이 십년 동안 크게 줄었다. 감소폭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컸다. 여자가 3%p, 남자가 4%p 넘게 줄어들었다. 토요일에 책을 읽는 남자는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지만 여자는 4%p 이상 줄어들었다. 일요일 남자의 경우도 독서하는 비율은 변화가 없을 정도이지만 여자는 2%p 가깝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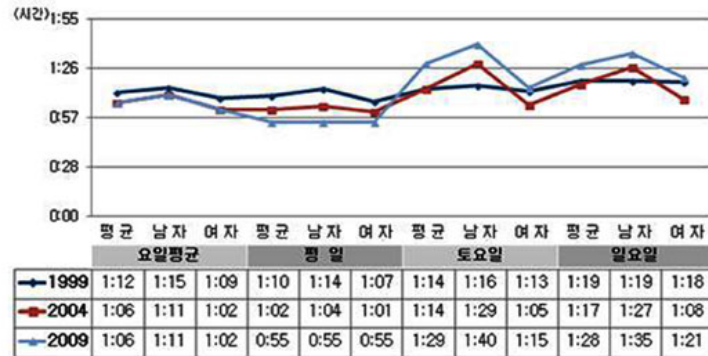
일일 독서 시간은 평균 70분 정도이다. 독서 시간 변동량은 남녀 모두 요일에 따라 일관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일에는 남자가 19분, 여자가 12분씩 줄어들었다. 반면에 토요일에는 남자가 24분, 여자는 2분이 각각 늘었다. 일요일에는 남자가 16분이지만 여자는 3분 늘어나는데 그쳤다.



독서하는 비율



독서하는 시간



1) 걷기, 산책, 등산, 하이킹(삼림욕 포함),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맨손체조,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그 외의 단체 스포츠(농구, 축구, 볼링, 당구, 골프,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기타 구기 등),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그 외 길 밖의 레저 활동, (낚시, 캠핑, 놀이공원 등)

2) 일반 책 및 만화책 읽기(신문, 잡지류는 제외)(소설, 전기, 교육 서적 등을 읽는 행동, 직업과 관련되어 읽는 활동은 일로 분류)
 지난 십년 동안(1999~2009) 인천시민들이 교제 및 여가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2004년에 4시간 55분으로 1999년 보다 12분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4시간 28분으로 십 년 사이에 가장 적었다. 운동과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이러한 여파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스포츠와 야외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나 사용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독서 시간도 줄고 있다.

인천시민들의 여가 통계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나호 보기

2012년 4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민들의 여가 통계

도시정영연구부 차 주 원 조영만연구원

■ 분석 자료 개요

- ▷ 자료명: 통계청(2012), 2011년 사회조사
- ▷ 자료개요: 인천지역 표본수 2061, 전국 표본수 38,012
- ▷ 분석 항목:
 - 주말과 휴일 여가 활용 형태
 -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경우 같이하는 사람
 -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희망하는 여가 활동
- ▷ 분석 대상: 인천과 전국

■ 항목별 분석 결과

1. 주말과 휴일 여가 활용 형태

- ▷ 분석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표 1 참조, 설문지는 그림 1 참조)
- 인천과 전국 모두 TV시청 및 DVD 시청, 가사, 휴식, 종교활동 순위였으나 인천의 경우,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이 사교활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 TV시청 및 DVD 시청>가사>휴식>종교활동>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사교
- 전국: TV시청 및 DVD 시청>가사>휴식>종교활동>사교>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그림 1.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설문(좌측 설문: 여가형태, 우측설문: 같이하는 사람)

52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1 TV시청(유선방송 포함) 및 DVD(비디오) 시청
- 2 여행(남시, 답사, 하이킹, 관광 등)
- 3 문화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 4 스포츠 관람
- 5 스포츠 활동(축구, 테니스, 골프, 당구, 체조, 승마 등)
- 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 7 창작적 취미(미술, 독서, 요리, 사진, 악기연주, 꽃꽂이 등)
- 8 자기개발(어학,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학원 등 이용)
- 9 봉사 활동
- 10 종교 활동
- 11 가사일(장보기, 집안청소 등 포함)
- 12 휴식(수면, 사우나 등)
- 13 사교관련일(친구만남, 친가방문, 동창회모임 등)
- 14 기 타 ()

52-1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1 가족과 함께
- 2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 3 동료회(종교단체 등 포함) 활동을 통해서
- 4 혼자서
- 5 기 타 ()



<표 1> 주말과 휴일 여가 활용 형태 분석 결과

구 분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전 국	인 천
1. TV시청 및 DVD 시청	13,806 (36.32)	738 (35.81)
2. 여 행	1,567 (4.12)	79 (3.83)
3. 문화예술 관람	1,083 (2.85)	97 (4.71)
4. 스포츠 관람	342 (0.9)	35 (1.7)
5. 스포츠 활동	1,938 (5.1)	99 (4.8)
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2,292 (6.03)	144 (6.99)
7. 창작적 취미	537 (1.41)	29 (1.41)
8. 자기개발	889 (2.34)	54 (2.62)
9. 봉사활동	92 (0.24)	5 (0.24)
10. 종교활동	3,490 (9.18)	187 (9.07)
11. 가 사 일	5,218	266

	(13.73)	(12.91)
12. 휴 식	4,003	220
	(10.53)	(10.67)
13. 사교관련일	2,507	104
	(6.6)	(5.05)
14. 기 타	248	4
	(0.65)	(0.19)
합계	38,012	2,061
	(100)	(100)

주: ()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

2.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경우 같이하는 사람

▷ 분석 결과: 표 2 참조(설문지는 그림 1 참조)

- 인천과 전국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음
- 인천과 전국: 가족>친구>혼자>동호회

〈표 2〉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경우 같이하는 사람 분석 결과

구 분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전 국	인 천
가족과 함께	21,613 (56.86)	1,118 (54.25)
친구와 함께	7,229 (19.02)	427 (20.27)
동호회활동을 통해서	2,157 (5.67)	125 (6.07)
혼자서	6,931 (18.23)	390 (18.92)
기타	82 (0.22)	1 (0.05)
합계	38,012 (100)	2,061 (100)

주: ()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

3.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희망하는 여가 활동

▷ 분석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표 3 참조, 설문지는 그림 2 참조)

- 인천과 전국 여행이 40%를 넘음. TV시청 및 DVD 시청은 7% 안팎,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은 2% 안팎으로 으로 저조
- 인천: 여행>스포츠 활동>문화예술 관람>TV시청 및 DVD 시청
- 전국: 여행>문화예술 관람>스포츠 활동>TV시청 및 DVD 시청

그림 2.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희망하는 여가 활동 설문

53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귀하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1 TV시청(유선방송 포함) 및 DVD(비디오) 시청

2 여행(남시, 답사, 하이킹, 관광 등)

3 문화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4 스포츠 관람

5 스포츠 활동(축구, 테니스, 골프, 당구, 체조, 승마 등)

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7 창작적 취미(미술, 독서, 요리, 사진, 악기연주, 꽃꽂이 등)

8 자기개발(어학,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학원 등 이용)

9 봉사 활동

10 종교 활동

11 가사일(장보기, 집안청소 등 포함)

12 휴식(수면, 사우나 등)

13 사교관련일(친구만남, 친가방문, 동창회모임 등)

14 기 타 ()

〈표 3〉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희망하는 여가활동 분석결과

구 분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귀하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전 국	인 천
1. TV시청 및 DVD 시청	2,626 (6.91)	150 (7.28)
2. 여 행	16,229 (42.69)	833 (40.42)
3. 문화예술 관람	3,386 (8.91)	179 (8.69)
4. 스포츠 관람	859 (2.26)	56 (2.72)
5. 스포츠 활동	3,042 (8.00)	187 (9.07)
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690 (1.82)	43 (2.09)
7. 창작적 취미	1,692 (4.45)	93 (4.51)
	2,566	152

8. 자기개발	(6.75)	(7.38)
9. 봉사활동	871	42
	(2.29)	(2.04)
10. 종교활동	1,596	91
	(4.2)	(4.42)
11. 가 사 일	453	28
	(1.19)	(1.36)
12. 휴 식	1,880	106
	(4.95)	(5.14)
13. 사교관련일	2,037	99
	(5.36)	(4.8)
14. 기 타	85	2
	(0.22)	(0.1)
합계	38,012	2061
	(100)	(100)

주: ()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

■ 분석 자료 개요 ▷ 자료명: 통계청(2012), 2011년 사회조사 ▷ 자료개요: 인천지역 표본수 2061, 전국 표본수 38,012 ▷ 분석 항목: ◦ 주말과 휴일 여가 활용 형태 ◦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경우 같이하는 사람 ◦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희망하는 여가 활동 ▷ 분석 대상: 인천과 전국